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서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통한다. 앱을 사용하고자 다운로드한다면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가 이어진다. 잠시 빅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생각이 많아지는가 싶다가도 그저 스치는 생각일 뿐 몸에 밴 습관처럼 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더 보기'를 누르지 않은 채 응하게 된다. 왜냐면 그 내용이 어렵고 길고 뻔할 테니까 말이다.

인터넷 쇼핑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동네 슈퍼와 미용실, 이제는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도 개인정보 동의는 기본이다. 식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고 보면 아예 업소에서는 앱을 통해 예약하라는 지시에 가까운 안내를 받기도 한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비롯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편리성을 앞세워 개인정보 제공 후에 받게 되는 광고 수령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는 당연한 일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사실 플랫폼 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다 간간하게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홍보 목적 컨텐츠 소비를 위한 출입에도 제한이 따른 지 오래다. 이미 기업에서 차별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며칠 전 가 본 서우 모빌리티 행사장에서도 입장권을 제시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 기업에서 특별히(?) 마련했다는 일부 전시장 입장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QR코드는 물론 인증 화신을 받는 절차를 해야만 했다. 관람을 원하는 개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거주 지역을 비롯한 관심있는 차량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정보 제공에 우리는 선택 동의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가 본 다른 대형 전시장을 떠올려 봐도 마찬가지였다. 금급증을 유행하도록 출입을 제한한 전시장 앞에서 기업은 마치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듯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개인정보에 더해 그들의 관심사와 취향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힘썼다.

스마트한 세상에서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컨텐츠가 주는 가치와 혜택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게 맞는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포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 개인정보를 쉽게 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순간 그리고 간간하게 따져 볼 일이다. 서비스를 받기 전 필수 동의를 요구한 것들이 내가 받고자 하는 본질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하는지 말이다.

'거대한 해킹' (The Great Hack, 2019)이란 다큐멘터리에서 데이비드 캐롤(David Carroll) 교수의

인터뷰는 데이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모으고 분석하면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 우리가 산업의 원자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용 조건을 읽어 보려고는 않는다면 빅데이터 해킹에 대해 경계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위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급하고 빠르게 체화한 셈이다. 그렇기에 습관적으로 관대하게 개인정보를 내어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어 왔다. 나조차도 통신사나 금융사에 준 내 개인정보가 어느 업체로 가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른다. 수많은 기업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설 뿐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올해 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면서 많은 것들이 보완되고 시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들이 하나같이 해결될 리는 없으며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될 것이다. 이제 개인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야 되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우리의 개인정보 관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동신여고 교사·수필가

고달 강나무, 지리산을 훑고 나온 섬진강은 눈부터 시리다. 강은 유연한 몸으로 산 구석구석을 찢고, 한가한 산은 탁족을 하고 있다. 한 밤 한 밤, 내딛는 걸음걸음, 내 시선은 강변 건너편에 머문다.

하얀 모래, 고운 자갈밭, 울랑쫄망 작은 바위 무더기, 좁은 산자락 군데군데 몇 안 되는 집들이 소담하다.

거기 마음을 준 지 오래. 끝없이 이어지는 강변, 햇살이 따갑다. 바람도 건너편을 뚫는다 보다. 바람의 간질거림에 수양버들은 연방 애교를 댈다.

간질함도 이렇듯 사무칠까? 누굴 만나자 함도, 어디로 가자 내전결음도 아닌데 한낮의 햇살이 습증은 상대다. 자꾸 건너편으로 눈이 간다. 그렇게 경기를 열며, 강변을 가로질러 줄이 쳐졌다. 나루터다. 필경 앞 마을로 이어지는 줄이라. 서둘러 고개를 내미니 물색도

은어의 사랑

창연터. 아니나 다를까 조그만 배가 바람에 출렁인다. 크지 않은 마을이니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 터. 서너 사람은 죽히 탈 성심은 나룻배가 햇살에 즐고 있다. 단 걸음에 내려가다 그만 깜짝 놀라 제자리에 서고 만다. 빈 배려니 여겼는데 인기척이 들린다. 누군가 팔배개를 하고서 곤한 잠에 빠져 있다.

'늙숙한 할아버지' 배는 요람처럼 물결에 흔들리고, 웃음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출렁인다. 꿈을 꾸는 모양이다. 사공의 곤한 잠을 깨울 수는 없는 법, 나도 바위를 하나 탁해 오듯하게 자리를 잡는다. 강물에 씻겼는지 세월에 깎였는지 여기서는 돌도 바위도 한껏 보드랍다. 엉덩이를 붙이니 물보다 포근하다.

피안과 치안.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그 위로 한낮의 햇살은 은어처럼 반짝인다. 노인의 꿈은 은어를 따라 여물을 헤엄친다.

바구니 속 채점은 굵기도 하다. 모래를 헤집던 소녀가 고운 돌로 물수제비뜨면, 청년은 각 갠진 참깨며 쏘 가리를 버찌 들어 화답한다. 향긋한 채점과 싱싱한 물고기, 날다넛은 섬진강 나무, 물란의 만남에 어찌 채점과 물고기만 오갈 것인가! 어찌 손질이 닿지 않으랴! 쏘가리 같은 기운찬 사내 손과 은어처럼 빛나는 소녀의 하얀 손이 부딪치던 잔잔한 강물도 한바탕 풍량이 일고, 수줍게 어지럽이 인 것을, 심한 몸살이 나는 것을

... 아버지들 줄라 노를 잡았을 것이다. 앞마을 소녀를 태울 때마다, 멋진 사람가 한따이 없었을까? 청년은 신량이 되고 아가씨는 신부가 되던 꿈을 꾸며 이 강변을 걸었을 것이고 강은 오롯이 돌만의 속삭임을 지켜 주었을 것이다.

노인은 그래서 이강을 떠나지 못하나 보다. 노를 저을 때마다 일렁이는 물결에 되살아나는 소녀의 방식 웃는 모습. 어찌 그 유년의 아름다운 꿈에 흠뻑 젖었나 보다. 소녀를 찾아 금방이라도 노를 저을 기세다. 꿈결에 웃음이 튀어나온다. 온몸 구석구석 은빛 비늘이 돋는다.

그리기를 한참, 할아버지는 굵은 등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어 물결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향긋한 소녀의 체취가 여태 남아 있는 섬진강 맑은 물. 소녀의 속삭이는 따스한 목소리가 여울물에 실려 온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뜨겁고 몸짓은 바쁘지만 하다.

그것도 잠시, 이내 강변 한쪽에 몸을 누이고 만다. 섬진강에 몸을 푼 지리산도 오수에 취했다. 지나는 구름도 지친 지리산의 하루를 이불인 양 덮는다.

은어는 쉬 출발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저 물을 바치고 뛰어나오는 꿈을 꾸고 있을 게다. 맑고 깨끗한 여울에 집을 짓고 사랑을 했던 그 옛날, 그 아름다운 꿈을...

꿈꾸는 2040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민주당의 공천 태스크포스(TF)가 총선용 공천 룰 논의에 한창이다. 지난 1월 26-2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모바일 웹 조사 형태로 광주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현행 권리당원 50%에 일반 국민 50%를 합산하는 룰 유지' 의견은 39.4%, '일반 국민 비중 확대'는 30.4%, '권리 당원 비중 확대' 의견은 9.7%, '권리 당원 100% 반영' 의견은 4.8%로 나타났다. 현행 룰 유지 여론이 조금 우세하고 공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 역시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량화된 시스템 공천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로 예정된 공천 룰 발표는 현행 룰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론조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리당원 비중 확대 의견은 약 15%, 일반 국민 비중 확대 의견은 약 30%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마침 한국갤럽에서 지난 3월 14-16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 지역은 무당층이 39%로 민주당 지지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주목을 받았다. 물론 표본

민주당 광주 경선, 시민 경선 어떤가

수가 적은 한시적 결과였지만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주권자 후보가 15%를 넘는 보수 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점과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채 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광주 시민들 중 상당수가 무당층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러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5% 넘는 득표율로 정권 재창출에 대한 확고한 결집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뉴스 보기가 싫어졌다는 말이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처럼 대선 이후 유권자들은 극심한 피로와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 여론은 민주당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광주·전남 각 803명을 대상으로 현 국회의원의 재선 희망 여부를 묻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광주·전남 각 ±3.5%) 광주에서는 새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9.2%, 현 의원 지지가 21.1%로 나타났다.

85%를 기록한 이재명 투표자들은 회복되지 않은 피로와 상실감을 민주당 공천에 대한 관점에서는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으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의견으로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전남은 이미 각 지역구마다 현역과 입지자들의 권리 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입당원서 모집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부터 나오고 있

다. 아마도 앞서 살핀 일반 시민들의 피로와 상실감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탓이 클 수 있다. 거대 야당이 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확인되는 모습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민주당 광주시당이 실시한 당원 정비 사업을 통해 39만 명이나 되는 민주당원 중 권리 당원은 약 12만 명에 이르는데 실제로 계좌번호가 다르거나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약 4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계좌번호를 다르게 적거나 당비 인출을 도중에 막는 당원 가입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피로 당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은 단돈 1000원 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거때에만 동원되고 이후는 방치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뒤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측면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다. 공당이라면 대선 때 확인된 지지자들을 당 지지자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편적 여론조사 결과에만 매몰되어 현행 룰 유지로만 쉽게 결론낼 것은 아니다.

분당만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결론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본선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100% 시민 경선을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민들도 해당 지역 경선에 뜨거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꼭 시민 경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선 이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민주당 지지세로 이끄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社說

5·18 국제화 절실한데 해외 활동가 양성 끄기나

5월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유학생을 NGO(비정부기구) 활동가로 양성하는 '5·18 민주인권 인적 교류 프로젝트'(GNMP)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전남대가 공동 추진하는 GNMP는 세계 각국의 해외 유학생들에게 전남대 글로벌 NGO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마다 서너 명의 학생을 선발해 2년 동안 학비·기숙사비·식비·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국·방글라데시·네팔 등 네 명 유학생을 시작으로 7년 동안 16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학생 등 일

급 명이 재학 중이며 오는 8월과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한데 재단은 올해 신입생 지원 대상 선정을 포기했다. 지난 2016년 1억 5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광주시의 지원 예산이

올해는 1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재학생들 지원하기에도 빠듯해져서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장 성과가 없고, 졸업생이 반드시 활동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매년 예산액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유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NGO 활동을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은 올해 5·18민주화운동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연구원 신설과 미·인·아·우크라이나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민주인권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광주시·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각국에 전파하는 메신저가 될 현지 활동가들이다. 광주시와 의회는 해외 활동가 육성 사업이 결실을 거둘 때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충분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꿀벌 실종' 위기의 양봉농가 지원 대책 절실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꿀벌들이 대거 집단 폐사하면서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양봉농가 168곳 중 90%가 넘는 156곳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벌통 2만 통 중 62%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역시 양봉농가 2169곳 중 94.1%인 2042곳, 벌통 수를 기준으로 하면 26만 7000통 중 60%인 16만 통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 양 지역 모두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증가했다.

꿀벌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양봉농가들은 꿀 수확을 제대로 못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텅 빈 벌통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새로 입식하려 해도 꿀벌 한 통 당 40만 원으로 2~3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한숨만 내쉬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예전에는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피던 꽃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피고 지는 바람에 전국을 이동하며 꿀을 따는 양봉 업자들

의 수입도 반토막 났다. 개화 시기에 맞춰 꿀을 모으던 이동식 양봉 방식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수분(꽃가루받이) 매개 역할로 식물의 번식을 돕는 꿀벌의 실종은 과수 농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데 정부는 꿀벌 폐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봉농가들이 꿀벌 응애를 제대로 방제하지 못한 것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데도 농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양봉농가들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 영세 농업의 비중이 높아 꿀벌 폐사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전을 위해 꿀벌·사료 구매 비용을 물론 자연재해에 준하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 조립을 확대해 생태계 보호에 힘쓰는 한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학계에서 종종 논쟁 대상이 된다. 역사의 승자인 백제와 신라를 중심으로 둔 전형적인 해석과 현지 세력 자체 제작설이 대립한다. 광주·전남 미한권역에서는 백제가 지역 지배층에게 하사했다는 설이, 가야 지역에서 나오면 신라가 나눠 줬다는 주장이 어김 없이 등장한다. 드물지만 현지 세력이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새로운 견해도 발표된다.

최근 비화 가야 지배층 무덤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관이 창녕 지역에서 자체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신라의 핵심 지역인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동관과 비교하면 도금층이 얇고 표면 색상 등도 일정하지 않고 장식에서도 경주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설과 달리 신라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918년 발굴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295호)도 백제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제가 담포제나 왕·후제(王·侯制) 등을 시행하면서 작위를 내린 지방 세력에게 금동관을 제공한 사례로 거론된다. 반면 임영진 전 전남대 교수는 '독립된 국

가의 왕이 영역 내부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은 영토 수호 임무를 의미하는 칼'이라며 '특정 지역 세력자에게 같이 아닌 금동관이 제공됐다면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상호 평화 공존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호의품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제작 기법과 양식적 특징도 백제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호의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학계에서 금동관 등 위세품(威勢品·권위를 보여 주는 기물)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유는 지역 고대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마

한의 경우 기존 해석대로 백제가 영토로 편입하고 금동관을 줬다면 마한의 독자적인 역사가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한사 단절은 백제사 확장을 의미한다. 그동안 연구 결과 6세기 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마한 명맥이 4~5세기에 끊기는 셈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나선 만큼 마한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